137-139 West 25th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212) 627-2227
www.thenyic.org

제 9 회 연례 뉴욕시 이민자의 날 행사와 이민자 행진 2009 년 3 월 10 일, 맨하탄

2009 뉴욕시 예산과 중요한 정책 현안:

이민자의 평등과 기회 증진을 위한 청사진

저렴한 주택 공급과 주택 관련 서비스의 이용

이민자는 뉴욕시 여러 지역의 쇠락을 막고 경제를 부흥시켜 온 주역이다; 만약 이민자가 없었다면, 뉴욕시는 인구 감소와 주택 개발 부진 그리고 현재보다 더 극심한 경기하락에 직면했을 것이다. ***우리는 뉴욕 시정부가 5 개 보로 전지역에 걸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유지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경기침체 시기에 중산층 이하 모든 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저렴한 주택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길 요구한다.***

이민자와 영어학습 학생들을 위한 교육 체계 개선

절반 이상의 뉴욕시 아동들은 이민자 가정 출신이며 또한 절반 이상의 이민자 학부모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다. 현재 뉴욕시에는 약 15 만 명에 달하는 영어학습 학생들(ELLs)이 존재하며, 이들은 전체 뉴욕시 학생의 14%를 점유한다. ***이 영어학습 학생들 중 겨우 25%정도 만이 4 년 안에 학교를 졸업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 학생들의 절반 이상 (50.5%)은 학교 졸업 증서의 획득에 실패하고 있다. 우리는 시정부가 영어학습 학생들과 신규 이민자 학생들이 직면한 대규모 낙제 사태를 해결하길 요구한다. 아울러 중단된 이민자 학생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복원하길 요구한다.***

이민자의 의료혜택 보장: 법적 보장과 사회안전망의 유지

의료혜택의 용이한 이용은 모든 뉴욕시 주민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비시민권자 이민자들은 시민권자와 비교해 의료보험 미가입율이 3.5 배에 달하며 응급 치료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이민자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 프로그램의 이용을 두려워 하는 한편, 의료 혜택 이용과 관련된 이민 신분 보호 규정과 이용 권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우리는 시정부가 언어지원 서비스 규정에 의거해 이민자의 의료혜택과 의료보험 이용을 증진시키도록 법적인 보장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뉴욕 시의회가 이민자의 의료혜택을 증진시키는데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료기관에 이중언어 구사 능력을 보유한 이민자들이 다수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고용을 활성화하도록 요구한다.***

영어교실과 이민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이민자들은 영어 구사를 위한 학습이야말로 미국에서 경제적 성공을 거두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 최근 현황은, 정부기금으로 운영되는 성인 영어교실의 경우 이민자가 이용 가능할 정도로 저렴한 곳은 6 만 자리 이하에 그치고 있다. 한편 영어학습이 절실이 필요한 뉴욕시의 영어사용 미숙자 인구는 2 백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민 노동자들은 건설업종의 실직사태에 큰 영향을 입고 있다. 또한 노동력 착취, 차별행위와 고용주의 임금 미지급 행위에 노출된 가장 약한 존재이다. ***우리는 시정부가 1125 만 달러의 이민자 기회증진 예산(Immigrant Opportunities Initionative)과 150 만 달러의 성인 언어교육 예산을 완전히 복원하여, 성인 영어교실 및 직업 교육, 사회인 교육에 사용하고 이민자가 직업과 관련된 부당한 범법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민 법률 서비스를 확충할 것을 요구한다***

이민자의 공원 사용 증진: 이민자와 공원 관리 당국의 협조

공원은 시민을 위한 공공 장소이다. 모든 뉴욕 시민들은 공원을 놀이와 사회 생활,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이민자와 공원 관리 당국의 협조 체계(The Immigrants & Parks Collaborative)를 통해 모든 주민들의 사용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는 열린 공간의 기능을 공원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민 노동자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지원

이민 노동자는 뉴욕시 전체 노동력의 절반을 점유한다. 그런데 이민 노동자들은 열악한 직장환경, 초과노동에 시달리며, 고용주들이 종종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 전체를 미지급하는 저소득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뉴욕시는 현재 특히 건설업종에서 직장 안전사고와 부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고의 피해자 중 75%는 이민자이거나 노조 미가입 노동자이다. ***우리는 블룸버그 시장과 시의회가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뉴욕시 일원의 커뮤니티 직업교육 센터에 충분한 기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2 백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노동자 안전 홍보활동을 하도록 요구한다.***